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7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9월 13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합원 여러분!

코로나가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생활에 불편과 변화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대명절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마음만은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지부장 김정태입니다.

21년 추석도 코로나와 함께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차디 찬 감옥에서 추석을 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변경하면서 재벌 이재용은 석방시키고, 그 자리에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고자 투쟁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불평등사회에서, 정의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추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노동해방의 사회를 쟁취하겠다는 노동자의 투쟁이 멈추지 않는 한, '미래의 희망은 노동자의 것이다' 라는 신념으로 오늘도 이 불평등사회에서 투쟁의 팔뚝질을 하면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반드시 사수하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강제연행, 구속시킨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이어 21년도 코로나로 고향방문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친지, 친구들을 만나서 일상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여유로운 추석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전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차디찬 감옥에서 추석을 보내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동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연대의 마음과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김정태 드림